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지역축제 개최 성과 평가 - 강원도와 부산·경남이 성공적 -		기 관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책 임	김형곤 소장/Ph.D/대학원 교수
	▶ '17년 2월 22일(수) 배포 ▶ 자료 총 5매		문 의	문지효 연구원/Ph.D
			이 메 일	moonjh@consumerinsight.kr
			연 락 처	02) 6004-7631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지역축제 시장규모 강원 2위, 1위는?

- 부산·울산·경남지역이 가장 커
- 수도권 거주민 지역축제에 관심 낮아
- 성공하려면 수도권 관심 끌거나, 지역밀착형으로 자리매김해야

지역축제는 지자체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개최 준비와 운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지만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다. 지역축제 성과 평가에서 강원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성공적이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부진했다. 지역축제가 성공하려면 수도권에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거나, 인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는 2016년도 1년 52주간 계속된 주례조사에서 10,219 명에게 지역축제 방문경험을 물었다. 응답자의 1/2(51%)이 지난 1년간 지역축제를 다녀온 경험 이 있었고, 이들은 평균 1.86개 축제에 참석했다.

1년간 개최된 총 751개¹⁾의 지역축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자료)의 개최 시도를 보면 <표1·C>, 가장 많이 열린 곳은 경기도(15.3%)였으며, 그 뒤를 서울(12.4%), 강원(10%), 충남 (10%)이 따랐다. 서울·경기는 전체 개최건수의 1/4 이상인 208개(27.7%)를 차지했지만 인구를 고려하면 적은 편이다<표1·C-A>. 인구에 비해 축제가 많은 곳은 강원·전남·충남 등이었다. 반면 부산·울산을 제외한 대도시들은 적었다. 놀거리·볼거리 등 여가 인프라가 풍부한 대도시 는 지방에 비해 축제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1) '14-'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지역축제 개최계획을 기초로 선정

<표1> 지역축제 개최 및 방문객 점유율 구조

(%)

지역	여행소비자 구성 (A)		거주민 축제참여 점유율 (B)		개최축제 점유율 (C)		방문객 점유율 (D)		GAP (단위 : %p)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B-A	C-A	D-C
전체	(10,219)	100.0	(9,378)	100.0	(751)	100.0	(9,378)	100.0			
강원	(329)	3.2	(430)	4.6	(75)	10.0	(1,442)	15.4	1.4	6.8	5.4
경기	(2,390)	23.4	(1,755)	18.7	(115)	15.3	(1,200)	12.8	-4.7	-8.1	-2.5
경남	(591)	5.8	(731)	7.8	(69)	9.2	(1,032)	11.0	2.0	3.4	1.8
전남	(318)	3.1	(457)	4.9	(63)	8.4	(1,030)	11.0	1.8	5.3	2.6
충남	(387)	3.8	(419)	4.5	(75)	10.0	(834)	8.9	0.7	6.2	-1.1
경북	(469)	4.6	(451)	4.8	(51)	6.8	(687)	7.3	0.2	2.2	0.5
전북	(382)	3.7	(562)	6.0	(40)	5.3	(626)	6.7	2.3	1.6	1.4
부산	(658)	6.4	(613)	6.5	(36)	4.8	(576)	6.1	0.1	-1.6	1.4
서울	(2,131)	20.9	(1,512)	16.1	(93)	12.4	(433)	4.6	-4.7	-8.5	-7.8
충북	(370)	3.6	(421)	4.5	(36)	4.8	(419)	4.5	0.9	1.2	-0.3
제주	(96)	0.9	(97)	1.0	(24)	3.2	(214)	2.3	0.1	2.3	-0.9
대구	(496)	4.9	(427)	4.6	(26)	3.5	(207)	2.2	-0.3	-1.4	-1.3
인천	(571)	5.6	(421)	4.5	(13)	1.7	(204)	2.2	-1.1	-3.9	0.4
울산	(194)	1.9	(197)	2.1	(13)	1.7	(193)	2.1	0.2	-0.2	0.3
광주	(417)	4.1	(490)	5.2	(12)	1.6	(147)	1.6	1.1	-2.5	0.0
대전	(422)	4.1	(395)	4.2	(10)	1.3	(135)	1.4	0.1	-2.8	0.1

(A) 여행소비자 구성 : 전체 응답자(우리나라 인구 구성비 반영·할당) 중 해당지역 거주민

(B) 거주민 축제참여 점유율 : 전체 축제 참여자 중 해당지역 거주민

(C) 개최축제 점유율 : 16개 광역시도 751개 축제 중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수

(D) 방문객 점유율 : 국내여행소비자 10,219명의 1년간 총 축제경험 수 9,378건 중 해당 지역의 방문 건수

가장 많은 관람자를 모은 지역 1위는 강원(15.4%)이었으며, 그 뒤를 경기(12.8%), 경남(11%), 전남(11%)이 따랐다<표1·D>. 상위 4개 지역이 전체 축제방문객의 절반을 차지했다. 부산을 제외한 대도시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서울은 4.6%로 거주 인구수(20.9%)나 개최 축제수(12.4%)에 비해 초라했고, 대구·인천·울산·광주·대전 등 대도시는 모두 2% 초반 이하였다<표1·D-C>.

지역축제의 수와 방문객의 점유율을 비교해 성과평가를 시도했다. ▲적은 수의 축제로 많은 사람을 모은 곳은 강원도, ▲축제를 거의 열지 않고, 방문객 유입도 적은 곳은 인천·울산·광주·대전 등 대도시들, ▲비교적 열심히 개최하고 있지만 여행 소비자·거주민 모두에게 외면 받는 곳은 서울·경기라 할 수 있다.

성과가 좋은 지역의 특징은 수도권에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원은 지역 거주민이 방문객의 1/5 수준(22%)에 그친 반면<표2·3>, 그 3배에 달하는 3/5(59%)을 수도권(서울 27%·경기 26%·인천 6%)으로부터 유치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고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다.

<표2> 축제 개최지역(16개 광역시·도) 방문객 거주지 구성비

(축제방문경험자, n=9,378, %)

		거주지																합계
		강 원	경 기	경 남	전 남	충 남	경 북	전 북	부 산	서 울	충 북	제 주	대 구	인 천	울 산	광 주	대 전	
개 최 지 역	(사례수)	(430)	(1755)	(731)	(457)	(419)	(451)	(562)	(613)	(1512)	(421)	(97)	(427)	(421)	(197)	(490)	(395)	
	강 원	22.4↓	26.1↑	1.5	0.8	2.4	2.8	1.2	1.5	26.9↑	2.9	0.4	1.2	6.0↑	0.8	1.2	1.9	100.0
	경 기	2.7	55.4	0.8	1.1	2.8	0.8	0.8	0.7	23.4	2.1	0.4	0.8	5.8	0.4	0.9	1.2	100.0
	경 남	0.9	6.4	45.5	2.9	1.3	3.0	1.5	18.4	8.0	2.0	0.1	4.9	0.8	1.7	1.7	1.1	100.0
	전 남	0.7	9.0	4.2	29.8	1.9	1.5	7.3	4.0	8.7	1.5	0.5	1.3	2.1	0.8	25.5	1.4	100.0
	충 남	0.7	16.8	1.8	1.2	28.8	1.1	6.3	0.6	13.0	5.6	0.0	1.5	3.8	0.2	1.0	17.4	100.0
	경 북	2.5	9.8	4.2	0.4	0.9	36.8	0.9	5.8	9.5	2.6	0.0	19.6	1.5	2.5	1.1	1.9	100.0
	전 북	0.8	7.9	1.4	5.0	3.5	0.8	53.7	0.9	9.3	2.2	0.2	0.6	1.9	0.5	8.4	2.7	100.0
	부 산	1.1	6.7	15.3	1.9	0.7	4.4	1.4	41.5	9.6	1.4	0.9	6.4	1.0	4.2	0.5	3.1	100.0
	서 울	0.7	24.1	1.9	1.6	2.1	0.5	2.3	1.2	50.9	2.5	0.5	1.4	6.7	0.9	0.5	2.3	100.0
	충 북	3.6	12.2	0.5	0.2	3.3	2.1	0.7	0.7	13.9	50.5	0.5	1.7	2.2	0.2	0.7	6.9	100.0
	제 주	1.4	15.5	3.3	2.8	0.5	1.4	5.2	4.2	17.9	0.9	31.4	3.3	3.7	2.3	4.2	1.9	100.0
	대 구	1.0	4.6	4.8	1.0	1.4	14.5	0.5	3.9	8.3	0.5	0.0	54.3	1.0	0.5	1.0	2.9	100.0
	인 천	1.0	17.7	1.0	1.0	2.0	1.0	2.0	0.0	12.3	0.5	0.5	0.0	58.7	0.5	1.5	0.5	100.0
	울 산	0.0	6.4	7.3	0.5	1.0	7.2	0.5	16.6	4.2	0.5	0.0	5.7	1.0	46.8	1.1	1.0	100.0
	광 주	0.0	4.8	2.0	14.3	0.8	0.7	4.8	1.4	4.7	0.0	0.7	2.7	1.4	0.7	59.0	2.0	100.0
대 전	0.0	5.2	0.0	0.7	8.9	1.7	4.5	2.9	7.4	2.2	0.7	0.0	1.5	3.0	2.3	58.9	100.0	

<표3> 축제 개최지역(북합광역지역) 방문객 거주지 구성비

(축제방문경험자, n=9,378, %)

		거주지										합계
		부산·울산·경남	강원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전북	서울	충북	제주	
개최지역	(사례수)	(1541)	(430)	(2176)	(947)	(814)	(879)	(562)	(1512)	(421)	(97)	
	부산·울산·경남	64.7▲	0.8	7.3	3.6	2.8	9.4	1.3	8.1	1.7	0.3	100.0
	강원	3.8	22.4▼	32.1▲	2.0	4.3	4.0	1.2	26.9▲	2.9	0.4	100.0
	인천·경기	1.8	2.4	63.4	2.1	3.7	1.6	0.9	21.8	1.9	0.4	100.0
	광주·전남	8.3	0.6	10.5	57.6	3.3	2.8	7.0	8.2	1.3	0.5	100.0
	대전·충남	3.1	0.6	18.8	2.3	49.3	2.5	6.0	12.2	5.2	0.1	100.0
	대구·경북	11.8	2.1	10.0	1.6	3.2	59.2	0.8	9.2	2.1	0.0	100.0
	전북	2.9	0.8	9.8	13.4	6.2	1.4	53.7	9.3	2.2	0.2	100.0
	서울	3.9	0.7	30.8	2.1	4.4	1.8	2.3	50.9	2.5	0.5	100.0
	충북	1.4	3.6	14.4	1.0	10.3	3.8	0.7	13.9	50.5	0.5	100.0
	제주	9.8	1.4	19.2	7.0	2.3	4.7	5.2	17.9	0.9	31.4▼	100.0

북합광역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19.2%)이 강원(15.4%)보다도 더 큰 지역축제 시장이었다[붙임 1·2]. 동남권이 최대 시장이 된 이유는 권역 내 교류(전체의 64.7%)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가장 성공적인 지역밀착형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관람객의 유입-유출 구조를 통해 본 지역축제의 성공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수도권을 유치하거나, 지역밀착형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인구와 개최건수에 비해 성과가 저조했다. 전반적으로 축제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지역축제를 외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주민이 외면하는 지역축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거주지는 아니어도 인근 지역을 찾는 지역밀착형은 성공적일 수 있다. 동남권은 인근지역을 적극적으로 찾는 좋은 예다.

이 조사는 16개 시도가 개최하는 지역축제와 여행소비자의 방문경험을 접목하여 성과·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매년 조사결과를 누적하고 소요 예산과 연계해서 본다면 유용한 평가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사 결과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여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기획한 ‘여행시장 단기예측 조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매주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례 조사로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했고, 현재 78차까지 총 표본 수는 24,800명(1~71차 300명, 72주차 ~ 500명)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 주까지의 주요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기존의 조사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www.consumerinsight.kr/travel)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화 연구원(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문지효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
moonjh@consumerinsight.kr 02)6004-7631

* 발표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붙임1] 개최지역 및 거주지별 유입-유출(16개 광역시·도)

(축제방문경험자, n=9,378, %)

		거주지																방문객 점유율
		강 원	경 기	경 남	전 남	충 남	경 북	전 북	부 산	서 울	충 북	제 주	대 구	인 천	울 산	광 주	대 전	
개최지역	(사례수)	(430)	(1755)	(731)	(457)	(419)	(451)	(562)	(613)	(1512)	(421)	(97)	(427)	(421)	(197)	(490)	(395)	
	강 원	3.44	4.01	0.23	0.12	0.36	0.43	0.18	0.22	4.14	0.45	0.06	0.19	0.92	0.13	0.18	0.30	15.4
	경 기	0.34	7.08	0.10	0.14	0.35	0.11	0.10	0.09	2.99	0.27	0.05	0.11	0.74	0.06	0.12	0.15	12.8
	경 남	0.10	0.70	5.00	0.32	0.14	0.33	0.16	2.03	0.88	0.22	0.01	0.54	0.09	0.19	0.18	0.12	11.0
	전 남	0.07	0.98	0.46	3.27	0.21	0.16	0.80	0.44	0.95	0.16	0.05	0.14	0.23	0.09	2.80	0.15	11.0
	충 남	0.06	1.50	0.16	0.11	2.56	0.10	0.56	0.05	1.16	0.50	0.00	0.14	0.34	0.02	0.09	1.55	8.9
	경 북	0.18	0.72	0.31	0.03	0.06	2.69	0.06	0.43	0.70	0.19	0.00	1.43	0.11	0.18	0.08	0.14	7.3
	전 북	0.05	0.53	0.10	0.33	0.23	0.05	3.59	0.06	0.62	0.15	0.01	0.04	0.13	0.03	0.56	0.18	6.7
	부 산	0.06	0.41	0.94	0.12	0.04	0.27	0.09	2.55	0.59	0.09	0.05	0.40	0.06	0.26	0.03	0.19	6.1
	서 울	0.03	1.11	0.09	0.07	0.10	0.02	0.11	0.05	2.35	0.12	0.02	0.06	0.31	0.04	0.02	0.11	4.6
	충 북	0.16	0.55	0.02	0.01	0.15	0.10	0.03	0.03	0.62	2.25	0.02	0.08	0.10	0.01	0.03	0.31	4.5
	제 주	0.03	0.35	0.07	0.06	0.01	0.03	0.12	0.10	0.41	0.02	0.71	0.08	0.09	0.05	0.10	0.04	2.3
	대 구	0.02	0.10	0.11	0.02	0.03	0.32	0.01	0.09	0.18	0.01	0.00	1.20	0.02	0.01	0.02	0.06	2.2
	인 천	0.02	0.38	0.02	0.02	0.04	0.02	0.04	0.00	0.27	0.01	0.01	0.00	1.28	0.01	0.03	0.01	2.2
	울 산	0.00	0.13	0.15	0.01	0.02	0.15	0.01	0.34	0.09	0.01	0.00	0.12	0.02	0.96	0.02	0.02	2.1
	광 주	0.00	0.08	0.03	0.22	0.01	0.01	0.08	0.02	0.07	0.00	0.01	0.04	0.02	0.01	0.93	0.03	1.6
	대 전	0.00	0.08	0.00	0.01	0.13	0.02	0.06	0.04	0.11	0.03	0.01	0.00	0.02	0.04	0.03	0.85	1.4
축제 참여율		4.6	18.7	7.8	4.9	4.5	4.8	6.0	6.5	16.1	4.5	1.0	4.6	4.5	2.1	5.2	4.2	100.0

[붙임2] 개최지역 및 거주지별 유입-유출(복합광역지역)

(축제방문경험자, n=9,378, %)

		거주지										방문객 점유율
		부산&울산 &경남	강 원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전 북	서 울	충 북	제 주	
개최지역	(사례수)	(1541)	(430)	(2176)	(947)	(814)	(879)	(562)	(1512)	(421)	(97)	
	부산&울산&경남	12.42	0.16	1.41	0.68	0.53	1.80	0.26	1.55	0.32	0.06	19.2
	강 원	0.59	3.44	4.94	0.30	0.66	0.62	0.18	4.14	0.45	0.06	15.4
	인천&경기	0.27	0.36	9.49	0.31	0.56	0.24	0.14	3.26	0.28	0.06	15.0
	광주&전남	1.05	0.07	1.32	7.22	0.41	0.35	0.88	1.03	0.16	0.06	12.5
	대전&충남	0.32	0.06	1.94	0.23	5.09	0.26	0.62	1.26	0.53	0.01	10.3
	대구&경북	1.12	0.20	0.95	0.15	0.30	5.65	0.07	0.88	0.20	0.00	9.5
	전 북	0.19	0.05	0.66	0.89	0.42	0.10	3.59	0.62	0.15	0.01	6.7
	서 울	0.18	0.03	1.42	0.10	0.20	0.09	0.11	2.35	0.12	0.02	4.6
	충 북	0.06	0.16	0.64	0.04	0.46	0.17	0.03	0.62	2.25	0.02	4.5
	제 주	0.22	0.03	0.44	0.16	0.05	0.11	0.12	0.41	0.02	0.71	2.3
	축제 참여율	16.4	4.6	23.2	10.1	8.7	9.4	6.0	16.1	4.5	1.0	100.0